

문제도박자의 단도박 의도를 예측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 검증

박근우¹, 서미경^{2*}

¹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²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Verif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at Predicts the Intention for Gambling Abstinence of Problem Gamblers

Keun-Woo Park¹, Mi-kyung-Seo^{2*}

¹Center on Gambling Problems, Kyungnam of Korea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문제도박자의 단도박 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는 문제도박자 100명을 대상으로 단도박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과 단도박 의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반한 모형검증을 위해 단도박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이 단도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단도박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지각된 통제력이고 그다음이 단도박 태도였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단도박 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문제도박자의 회복을 위해 단도박 효능감과 단도박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행동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즉, 도박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대처기술훈련이 필요하고, 긍정적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도박문제 정보제공과 교육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독관리기관을 중심으로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at predicts the intention of a problem gambler to abstain from gambling. In order to investigate attitudes toward gambling abstinenc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s to abstain from gambling, we surveyed 100 problem gamblers who used community-based service centers. Furthermore, we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hether attitude toward gambling abstinenc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can influence the intention to abstain from gambling. The analysis of the study model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gambling abstinence intention is perceived behavior control, followed by a positive attitude toward gambling abstinence. In contrast, subjective norms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ntions for gambling abstine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to improve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gambling abstinence in order to help problem gamblers recover. In other words, continuous support and coping-skills training are needed to reinforce the belief that people can recover from a gambling problem, and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problem gambling to improve positive attitudes can also be helpful.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not only the treatment of gambling problems, but also to provide preventive interventions centering on the addiction management institution.

Keywords : Gambling,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5A2A01024740).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Seo(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welseo2641@gmail.com

Received July 22,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August 26,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1. 서론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5%가 넘는 사람들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1] 점차 그 문제가 저연령화됨에 따라 도박중독은 정신건강의 주요한 문제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2]. 도박중독은 물질중독과 달리 재정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기까지 주변에서 인식하지 못한다[3]. 도박중독자 역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4-6]이 있어 조기개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처럼 초기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독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경제적·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큰 고통을 겪게 된다[7]. 따라서 다른 중독문제와 마찬가지로 도박문제 역시 중독자의 단도박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중독문제를 가진 자가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 치료에 순응하고 회복과 재활을 위한 심리 사회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의 의도적 통제 하에 건강관리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이론이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이다[8]. TPB에서는 인간 행동의 선행단계로 의도(Intention)가 형성되며, 이 의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간행동이 정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의도가 높을수록 행동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의도는 행동(Behavior)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와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Subjunctive norms), 행동 수행 능력, 방법, 자원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Perceived behavior control)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9]. TPB는 인간 생활 영역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특히 건강과 관련된 행동은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론을 음주 행동[11,12], 전문적 도움추구[13-15], 도박성 게임 행동[16], 약물[17]이나 치료순응[18], 섭식행동[19]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근거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도박 의도가 회복과정에 중요하리라 생각되는 문제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문제도박자의 단도박 의도(Intention for gambling abstinence)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단도박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TPB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도박자의 단도박 태도(Attitude toward gambling abstinence),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이 단도박 의도를 예측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도박자의 단도박 의지를 향상하기 위한 증거기반 실천개입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대전, 부산, 대구광역시 및 경남지역의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이다. 연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박문제 급성기에 있는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윤리심사 승인을 받았다(IRB No: GIRB-A18-Y-0013).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120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13명, 극단값 7명을 제외한 1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단도박 태도

단도박 태도는 Ajzen[20]이 개발한 태도 문항을 정신건강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박사학위를 가진 2명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도박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3차에 걸쳐 검토하였다. 단도박 행동에 대해 '나쁘다 ↔ 좋다', '해가 된다 ↔ 유익하다', '가치 없다 ↔ 가치 있다' 등의 단도박 행동에 대한 대상자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 6문항을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도박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883이다.

2.2.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Ajzen[20]이 개발한 주관적 규범 문항을 도박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자신의 단도박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 등의 4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761이다.

2.2.3 지각된 통제력

지각된 통제력은 Zemore와 Kaskutas[21]가 사용한

금주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 문항을 정신건강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박사학위를 가진 2명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도박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내용이 타당한지 3차에 걸쳐 검토하였다. 단도박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4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Cronbach's α 값은 .600이다.

2.2.4 단도박 의도

단도박 의도는 Zemore와 Kaskutas[21]가 사용한 금주 행동 문항을 도박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박을 끊도록 노력할 것인지, 도박을 끊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등의 10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도박 의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926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 이상치(outlier) 처리와 정규성(normality)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주요 변수 간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 분석법(Two-step Approach)으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2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를 참조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는 성인 남성 100명이며, 평균 연령은 34.6±10.1세로 20대 36명(36.0%), 30대 39명(39.0%), 40대 이상 25명(25.0%)이다. 연구대상자로 남성이 표집된 것은 문화적 특성상 여성이 도박문제를 노출하기 어려워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꺼린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표집

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포함되기 어려웠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6명(6.0%) 고등학교 졸업 38명(38.0%),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명(56.0%)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3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17명(17.0%), 무직 및 학생이 30명(30.0%)이었다. 단도박 평균 기간은 4.4±5.4개월이고, 서비스 이용 평균 기간은 6.3±5.4개월이었다(Table 1).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M±SD
Age (year)	<30	36(36.0)	34.6±10.1
	30-39	39(39.0)	
	≥40	25(25.0)	
Education	≤Middle school	6(6.0)	-
	High school	38(38.0)	
	≥College	56(56.0)	
employment type	Regular worker	53(53.0)	-
	Part time	17(17.0)	
	Unemployed/Student	30(30.0)	
Gambling abstinence period (month)	<1	25(25.0)	4.4±5.4
	1-3	33(33.0)	
	4-6	20(20.0)	
	≥7	22(22.0)	
Service use period (month)	<1	16(16.0)	6.3±5.4
	1-3	52(52.0)	
	4-6	6(6.0)	
	≥7	26(26.0)	

4.2 주요변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단도박 태도 평균 점수는 6.84점, 주관적 규범의 평균 점수는 4.66점, 지각된 통제력의 평균 점수는 4.23이며, 단도박 의도의 평균 점수는 4.41점이었(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Variables

Variable	M±SD
Attitude toward gambling abstinence	6.84±0.34
Subjective norms	4.66±0.43
Perceived behavior control	4.23±0.56
Intention for gambling abstinence	4.41±0.54

4.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령은 단도박 기간($r = .289$, $p < 0.01$)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단도박 기간이 더 길었다. 단도박 기간은 단도박 의도($r =$

.213, $p < 0.05$)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여 단도박 기간이 길수록 단도박 의도가 높았다. 단도박 태도는 단도박 의도($r = .578, p < 0.01$), 주관적 규범($r = .443, p < 0.01$), 지각된 통제력($r = .30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단도박 태도가 높아질수록 단도박 의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단도박 의도($r = .580, p < 0.01$), 지각된 통제력($r = .40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주관적 규범이 높아질수록 단도박 의도와 지각된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각된 통제력은 단도박 의도($r = .666, p < 0.01$)와 정적 상관으로 지각된 통제력이 높아질수록 단도박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1	1					
2	.289**	1				
3	-.055	.057	1			
4	.061	.074	.443**	1		
5	.139	.095	.303**	.403**	1	
6	.137	.213*	.578**	.580**	.666**	1

Note. *: $p < 0.05$, **: $p < 0.01$
 1:age, 2:gambling abstinence period, 3:Attitude toward gambling abstinence, 4:Subjective norms, 5:Perceived behavior control, 6:Intention for gambling abstinence

4.4 구조모형 분석

4.4.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적합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측정모형의 표준화 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개념 신뢰도는 0.7,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 나타나 모든 관측변수가 적절하였다.

4.4.2 이론모형 검증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문제도박자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Fi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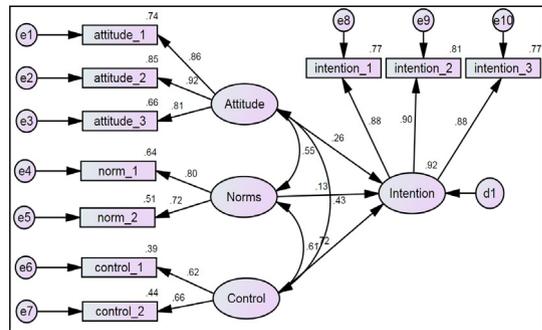


Fig. 1. Standardized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Model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χ^2 값은 24.752($p = .691$), SRMR 값은 .032, GFI 값은 .953, NFI 값은 .960, TLI 값은 1.000, CFI 값은 1.000, RMSEA 값은 .001로 적합성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Table 4).

Table 4. Model's Goodness of Fit

$\chi^2(p)$	df	χ^2/df	SRMR	GFI	NFI	TLI	CFI	RMSEA
24.752 (.691)	29	.854	.032	.953	.960	1.000	1.000	.001

Note.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통제력→의도($\beta = .724, p = .000$)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태도→의도($\beta = .260, p = .013$)이었으나 주관적 규범은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Parameter Estimates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p
	B	β			
Intention ← Attitude	.535	.260	.216	2.481	.013
Intention ← Norms	.207	.129	.264	.784	.433
Intention ← Control	1.067	.724	.321	3.323	.000

5. 논의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단도박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이 단도박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문제도박자들의 단도박 의도를 TPB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론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를 보면, 단도박 의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지각된 통제력이고, 그 다음이 태도이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력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9,18,23,24]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력 다음으로 태도가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도박이 자신의 회복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개인의 평가가 단도박 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달리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도움요청행위나 치료서비스 이용의도를 예측한 연구들[14,25,26]에서는 지각된 통제력보다 태도가 의도에 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어느 것이 더 큰 예측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지각된 통제력과 태도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강행동 의도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수 중 주관적 규범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12,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문제를 다룬 연구들[28,29]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독문제가 중독자뿐 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중요한 타자인 가족의 압력이나 바람에 순응하는지가 개인의 단도박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대상자 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문제도박자들의 단도박 의도는 개인의 지각된 통제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실제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확률을 가장 잘 예측하므로 단도박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지각된 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각된 통제력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된 격려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기술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적 개입은 지각된 통제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측요인인 긍정적 태도 역시 향상할 수 있다. 인지적 개입에 추가하여 도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교육 역시 긍정적 태도를 의미 있게 향상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도박문제 관리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박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관리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문제도박자들에게 적용하여 증거에 기반한 개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도박자 집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전문치료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도박 의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을 예측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의도까지만 보았다. 의도를 측정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실제 얼마나 행동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들[14,25,26,30]에서도 의도만으로 수행 가능성을 예측하나 보다 명확한 이론 적용을 위해서는 행동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Investigation of Usage Condition of Gambling Industry in South Korea,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Korea, 2018.
- [2] H. C. Cho, K. W. Park,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about the effects of ecological systematic factors on the onset of adolescents' gambling behavior: Apply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0, pp.309-338, 2017.
- [3] N. Hing, A. Russell, E. Nuske, S. Gainsbury, *The Stigma of Problem Gambling: Cause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Victorian Responsible Gambling Foundation, Australia, 2015.
- [4] L. Evans, P. Delfabbro, "Motivators for change and barriers to help-seeking in Australian problem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Vol.21, No.2,

- pp.133-155, 2005.
DOI: <https://doi.org/10.1007/s10899-005-3029-4>
- [5] H. Suurvali, D. Hodgins, T. Toneatto, J. Cunningham, "Treatment seeking among Ontario problem gamblers: Results of a population survey", *Psychiatric Services*, Vol.59, No.11, pp.1343-1346, 2008.
DOI: <https://doi.org/10.1176/appi.ps.59.11.1343>.
- [6] H. Tavares, S. S. Martins, M. L. Zilberman, N. el-Guebaly, "Gamblers seeking treatment: Why haven't they come earlier?", *Addictive Disorders and Their Treatment*, Vol.2, No.1, pp.65-69, 2002.
DOI: <https://doi.org/10.1097/00132576-200206000-00005>
- [7] D. C. Hodgins, J. N. Stea, J. E. Grant, "Gambling disorders", *The Lancet*, Vol.378, No.9806, pp. 1874-1884, 2011.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10\)62185-X](https://doi.org/10.1016/S0140-6736(10)62185-X)
- [8] I. Ajz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2, No.4, pp.665-683, 2002.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2.tb00236.x>
- [9] M. K. Seo, "Health-management behavior amo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0, No.4, pp.191-213, 2018.
- [10] R. R. C. McEachan, M. Conner, N. J. Taylor, R. J. Lawton, "Prospective prediction of health-related behaviours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Review*, Vol.5, No.2, pp.97-144, 2011.
DOI: <https://doi.org/10.1080/17437199.2010.521684>
- [11] T. Stecker, M. P. McGovern, B. Herr, "An intervention to increase alcohol treatment engagement: A pilot trial",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43, No.2, pp.161-167, 2012.
DOI: <https://doi.org/10.1016/j.isat.2011.10.028>
- [12] S. E. Zemore, I. Ajzen, "Predicting substance abuse treatment completion using a new scale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46, No.2, pp. 174-182, 2014.
DOI: <https://doi.org/10.1016/j.isat.2013.06.011>
- [13] G. J. Westerhof, M. Maessen, R. de Bruijn, B. Smets, "Intentions to seek(preventive) psychological help among older adult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geing and Mental Health*, Vol.12, No.3, pp.317-322, 2008.
DOI: <https://doi.org/10.1080/13607860802120797>
- [14] P. K. H. Mo, W. W. S. Mak,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hines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4, No.8, pp.675-684, 2009.
DOI: <https://doi.org/10.1007/s00127-008-0484-0>
- [15] G. Schomerus, H. Matschinger, M. C. Angermeyer, "Attitudes that determine willingness to seek psychiatric help for depression: A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sychological Medicine*, Vol.39, No.11, pp.1855-1865, 2009.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09005832>
- [16] S. J. Kwon, K. H. Kim, J. W. ChoI, "Awareness of adult gambling and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Health*, Vol.11, No.1, pp.147-162, 2006.
- [17] M. Conner, K. Black, P. Stratton, "Understanding drug compliance in a psychiatric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 Vol.3, No.3, pp.337-344, 2007.
DOI: <https://doi.org/10.1080/13548509808400607>
- [18] A. Kopelowicz, R. Zarate, C. J. Wallace, R. P. Liberman, S. R. Lopez, J. Mintz,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mprove treatment adherence in Mexican American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83, No.5, pp.985-993, 2015.
DOI: <http://dx.doi.org/10.1037/a0039346>
- [19] M. K. Lee, D. W. Han, "A Test of model to explaining restrained eating behavior: Exploring the modifi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Health*, Vol.6, No.2, pp.173-190, 2001.
- [20] I. Ajzen,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2006", Available From: <http://www.unix.oit.umass.edu/tpb.measurement> (accessed Feb, 10, 2018)
- [21] S. E. Zemore, L. A. Kaskuta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lcoholics Anonymous intention measur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104, No.3, pp.204-211, 2009.
DOI: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09.04.019>
- [22]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199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23] M. Corbière, S. Zaniboni, T. Lecomte, G. Bond, P. Y. Gilles, A. Lesage, E. Goldner, "Job acquisition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enrolled in supported employment programs: A theoretically grounded empirica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Vol.21, No.3, pp.342-354,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926-011-9315-3>
- [24] B. T. Mautsach, R. C. Moore, T. Davine, V. Cardenas, C. R. Bowie, J. Ho, D. V. Jeste, T. L. Patterson, "The use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engagement in functional behaviors in schizophrenia", *Psychiatry Research*, Vol.205, No.1-2, pp.36-42, 2013.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2.09.016>
- [25] F. Aguirre, *Understanding Help-seek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of Mexican Origin Who are Suffering from Anxious and/or Depressive Symptom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USA, 2012.

- [26] L. M. Bohon, K. A. Cotter, R. L. Kravitz, P. C. Cello Jr, E. Fernandez y Garcia,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it predicts potential intention to seek mental health services for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64, No.8, pp.593-603, 2016.
DOI: <https://doi.org/10.1080/07448481.2016.1207646>
- [27] B. M. Booth, K. E. Stewart, G. M. Curran, A. M. Cheney, T. F. Borders, "Beliefs and attitudes regarding drug treatmen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frican-American cocaine users", *Addictive Behaviors*, Vol.39, No.10, pp.1441-1446, 2014.
DOI: <https://doi.org/10.1016/j.addbeh.2014.05.012>
- [28] M. Ataee, T. A. Jouybari, M. M. Alavijeh, A. Aghaei, M. Mahboubi, F. Z. Motlagh, "Factors related with intention to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among Iranian men addicts", *Life Science Journal*, Vol.11, No.4s, pp.228-231, 2014.
- [29] N. H. Kim, *A Study o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30] P. Skogstad, F. P. Deane, J. Spicer, "Social-cognitive determinants of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prison inmat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Vol.16, No.1, pp.43-59, 2006.
DOI: <https://doi.org/10.1002/cbm.54>

서 미 경(Mi-kyung-Seo)

[정회원]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회장
- 2012년 1월 ~ 2013년 12월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회장
- 1998년 3월 ~ 현재 : 국립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장애인 인권, 정신장애인 가족, 윤리와 철학

박 근 우(Keun-Woo Park)

[정회원]



- 2011년 3월 ~ 2015년 8월 : 국립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10월 ~ 2015년 6월 : 성가톨릭병원 사회복지사
- 2015년 7월 ~ 현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팀장

〈관심분야〉

정신장애인 인권, 도박중독